

제 14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를 다녀와서

조 규 상

제14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ACOH)는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학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회 회의장소는 아시아 올림픽때 지어진 건물로 주변에 새로운 호텔들이 들어서서 국제학회를 하기에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ACOH는 국제산업보건학회(ICOH)의 산하학회로서 1948년 일본의 산업보건분야의 원로였던 Teruoka박사가 창설하여 그후 매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에 주최한 바 있다.

금번 ACOH는 중국 예방의학 학술원인 북경의 산업의학연구소가 주관하였다. 그리고 관례에 의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와 서태평양지역 사무

소(WPRO), 세계노동기구(ILO)가 후원하였다.

조직위원장인 He.Fengsheng교수는 영국에서 공업중독을 전공하고 WHO 본부 산업보건국에서도 일한 여성학자로서 한국에서도 알려진 사람이다. 개회식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회장 He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보건장관과 노동부차관의 축사가 있었는데 모두 여성이라 중국의 우먼파워를 보는 것 같았다.

이어 WHO 서태평양차장 한상태박사, ILO본부 노동환경국장 Pinnagoda박사(이 사람은 지난해에 우리협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 국제산업보건학회 회장 Caillard박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번 ACOH 학술상은 Dr.Wang Ruisheng이 “취의 간독성에 대한 Glutathione S-Transfer-

제 14차 ACOH 개회식



ase와 Hepatic Cytochrom P450의 조절기능”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하였다. 이 학술상은 198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시 제정된 것으로서 35세 이하의 젊은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입후보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를 마치고 전문분야 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령상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총회 강연으로는 핀란드의 J.Rantanen교수의 “산업보건의 예방전략”, 싱가포르의 J.Jeyaratnam교수의 “산업보건사업을 위한 가정보건관리적 접근”, 일본의 Akeda교수의 “생물학적 감시와 생물학적 증후”, 이태리의 Waroni교수의 “농약 폭로 작업자의 건강감시”, 미국 Wagner교수의 “광물성 분진 폭로 작업자의 의학적 선별과 감시”, 호주의 Phoon박사의 “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보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강연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승한교수의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건강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분과학회는 12개로 나누어 진폐가 2개분과, 공업중독 2개분과, 환경과 생물학적 감시, 산업중독, 노동생리, 인간공학, 농약중독, 유기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산업보건역학, 산업보건사업, 기타 1개분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진폐와 공업중독의 연계가 많았다. 현재 중국에는 진폐증환자가 50만명으로 추산되어 있어 이것은 직업병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그리고 WHO에서도 진폐예방에 대하여 한·일·중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159개의 연제중 우리나라에서는 9개가 발표되었는데 그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윤임중(가톨릭의대) Release of Inflammatory and Fibrogenic Mediator in Rat Alveolar Macrophage Stimulated with Free Sillica and Coal Dust

강성규(산업보건연구원) Styrene in Air and Blood and Mandelic Acid in Urine in the Worker Exposed to Styrene

장성훈(건국의대) A Studyon the Activity of Erythrocyte Pyrimidine 5-Nucleotidase in Workers Expose to Lead

김양욱(조선의대) An Outbreak of CBDs in a

Microwave Oven Assembly Factory(미발표)

김윤신(한양의대) Investigation of Indoor Air Quality and Health Assessment of Workers in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신동천(연세의대) Factors Related to the Behavior of Pesticide Use and Pesticide Poisoning Among Korea Farmers

천용희(직업병 연구소) Mixed Organic Solvent Exposure and Angina Pectoris in Factory Workers

조수현(서울대의대) The Application of the NCTB for Health Management Program in the Small Scale Industry Using Organic Solvents

우극현(순천향의대) Development of A Model Group on Occupational Health Suveillance Systems in Small and Medium Scale Factories in Gumi Industrial Complex, Korea

이외에 전시장에서는 Poster로서의 논문전시가 있었다.

학회 참가국가는 38개국에서 631명이 참가하였는데 주체국인 중국에서 절반이상인 344명이 참석하였고 외국은 287명이 참가하였다. 외국으로서는 일본이 가장 많은 76명이었고 다음이 한국의 42명이었다. 아시아에서는 14개국이 참가하였는데 일본과 한국을 빼면 언제나 그렇듯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10명 미만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아시아 이외의 구미는 물론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참가하여 아시아 학회라기보다는 국제 학회의 느낌을 주었다. 다음 학회는 말레이시아의 코롬보에서 3년후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중국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최근 10년간 개방정책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륙과 인구, 그리고 자원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갈 때마다 가지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발전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산업보건분야에 있어 우리와의 교류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ACOH는 한국과 중국의 학문적 교류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